

앞에서 살펴본 대로 막 8:22-10:52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8:17, 21)는 예수의 질문에 대한 우회적 답변이고 보충설명이다. 두 번의 눈 뜸 사건을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8:22-10:52는 하나의 문학적 단위를 형성하는데, 제자들이 점차 영적으로 눈을 떠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을 암시한다. 세 번에 걸쳐 나타나는 예수의 고난, 십자가 처형과 부활은 각각 제자들의 몰이해와 예수의 가르침으로 이어진다. 이 모두가 예수의 정체성(예수가 누구인지)과 삶(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지리적으로 이야기는 멀리 이방 땅에서 출발하여 갈릴리와 유대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고, 이 기간 동안 예수의 모든 가르침은 제자에게만 집중된다. 더 이상 군중을 대상으로 한 가르침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예수는 비유가 아니라 “드러내 놓고” 말하기 시작한다(8:32). 이렇게 길에서(on the way) 행해지는 예수의 가르침은 또 하나의 길(道)을 내포한다. “길에서”란 말이 여러 번 중요한 장면에 쓰이는데(8:27; 9:33; 10:32), 모두 예수가 앞으로 당할 일을 말하는 수난 이야기의 배경으로 예수의 “길”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따르는 이가 소경 바디매오인데 그는 길가에서—길 밖에서—구걸하다가 예수를 만나고는 길에서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막 8:22-52는 끝을 맺는다.

### 브레데(Wilhelm Wrede): 메시아 비밀 (1901)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해석학적 열쇠 혹은 신학적 입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메시아 비밀 가설이다. 몇몇 대표적인 현대 주석 일부를 들여다 보자.

- “여기서 금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적 사고(思考)나 혹은 제자들의 이런 사적인 견해가 아니라 그들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일이다... 14:61-62에 이에 대한 공표(公表)가 나오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때가 오면 제자들이 아닌 예수 스스로 이 비밀을 깰 것이다.”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330).
- “베드로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침묵명령은 메시아비밀의 한 요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238);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진정한 정체는 십자가와 부활 때까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M. Eugene Boring, *Mark: A Commentary* [N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6], 270).
- “예수는 세례와 함께 메시아로 인침을 받았지만, 부활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 메시아 직(office)을 수행한다(9:9; 14:61-21을 보라).” (Adela Yarbro Collins, *Mark: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7] 66).

메시아 비밀의 저자, 브레데는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의 침묵 명령에 주목한다. 예수 자신에 대해 나타내지 말라는 명령이다. 먼저 예수를 알아보는 더러운 영들에게 침묵할 것을 명한다(1:25, 34; 3:12). 또 병자들을 고친 후 그들에게 침묵을 요구한다(1:43-45; 5:43; 7:36; 8:26).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고 말하지 못하게 하며(8:30; 9:9), 예수 스스로도 자신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다(7:24; 9:30).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바디매오를 침묵시키려고 시도함(10:47-48) 또한 한 가지 모티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The Messianic Secret*, 34).

이 외에 남들이 예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게 비유를 써 말한 것도 메시아 비밀과 연관되어 있다(4:10-12, 34). 예수의 정체와 그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 역시 마찬가지로(4:13; 4:40-41; 6:50-52; 7:18; 8:16-21; 9:5-6, 19; 10:24; 14:37-41).

브레데는 이 메시아 비밀을 마가복음 저자의 창작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단지 당시에 유행한 두 가지 예수의 기독론을 절충하려는 노력을 마가복음을 통해 증거한다. 오래된 전승에 의하면 예수는 부활과 함께 메시아로 승격되었다는 주장인데(행 2:36; 롬 1:4; 빌 2:6-11), 보다 최근의 이해는 예수는 처음부터 메시아였다는 주장이다(요한복음). 브레데에 의하면 예수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으며 제자들 또한 그런 이해를 갖지 못했다. 이렇게 부활을 전후로 예수에 대한 다른 생각이 공존함에 따라, 이를 설명할 목적으로 메시아 비밀이라는 가설을 가능케 했다. 예수는 본래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았지만, 자신의 생애 동안에는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도록 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제자들 또한 예수가 드러내 놓고 가르쳐 주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주장이다(8:30; 9:9).

브레데의 메시아 비밀은 후대 마가복음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당시 일반적 이해는 마가복음을 역사적 예수 연구를 위한 역사적 기록(자료)으로 여겼지만, 브레데는 마가복음이 신앙/신학적, 문학적 산물임을 밝힌다. 마가복음 역시 교리의 영역에 속한다(131). 후대의 편집비평(redaction criticism)과 20 세기 말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해 드러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는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브레데의 논문은 나름대로 의의를 갖는다.

여기에 물론 문제점도 있다. 메시아 비밀 모티브가 일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여러 번 자신의 정체가 알려져 숨어 다닌다(1:44-45). 또 스스로 자신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가 하면(5:19-20), 그의 침묵명령이 지켜지지도 않는다(1:44-45; 7:36; cf. 7:24; 10:52). 이 점은 브레더도 인정한 것인데 ‘메시아비밀’이 마가의 창작이 아니고 당시 유행한 초기 교회의 추세(Tendenz)를 반영했기 때문이다(145). 또 다른 의문은 만일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면, 예수는 왜 그들을 전도하도록 보냈으며 또 무엇을 가르치게 했나? 또 몇몇 제자들에게만 비밀리 자신을 알렸다면, 부활 때까지 예수의 참 모습을 몰랐던 제자들에게 교회의 사도 권위와 관련해서 무슨 특별함이 있었나?

비평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예수는 처음부터 스스로 메시아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슈바이처와 영미학과)과 함께 대부분 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도외시한다. 문제는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역사성을 찾았던 브레데 이전 학자들이나 브레데 모두, 막 8:30 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문자적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마가복음 속에서 메시아 비밀의 존재를 확신한 결과로 보인다. 이 모두가 마가복음의 거친 표현, 꾸밈음(에피티마오, ἐπιτιμάω)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인다. 예수는 처음부터 메시아였다는 주장(근본주의)이나 그것은 후대의 산물이라는 주장(자유주의) 모두 “메시아 비밀”이라는 가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메시아 비밀인가 신학 다시 하기인가?

브레데는 막 8:30 과 9:9 을 메시아 비밀의 핵심으로 보았다. 필자의 생각에는 여기에 10:45 을 더하여, 이 세 구절을 최소한 8:22-10:52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구로 취급하는데, 이 구절들을 신학 다시하기 관점에서 풀고자 한다. 여기서는 8:30 만 살펴보기로 한다.

8:30 이에 [예수께서] 그[것]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그들을 꾸짖으시고

- καὶ ἐπιτίμησεν αὐτοῖς ἵνα μηδενὶ λέγωσιν περὶ αὐτοῦ.
- KJV: And he charged them that they should tell no man of him.
- NRSV: And he sternly ordered them not to tell anyone about him.
- NIV: Jesus warned them not to tell anyone about him.

- 개역: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 표준새번역: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 공동번역: 그러자 예수께서는 자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번역본 어디에도 ‘꾸짖다’(rebuked)는 해석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우리말 성경은 (인칭)대명사가 하나 같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꾸짖다(ἐπιτιμάω)는 말은 신약성서에 많이 등장한다: 마 8:26; 12:16; 16:22; 17:18; 19:13; 20:31 (6 번); 막 1:25; 3:12; 4:39; 8:30, 32f; 9:25; 10:13, 48; (9 번); 눅 4:35, 39, 41; 8:24; 9:21, 42, 55; 17:3; 18:15, 39; 19:39; 23:40; (12 번). 이렇게 공관복음서에만 27 번, 그 외 2 번 더 등장한다(딤후 4:2; 유 1:9). 이 중 공관복음에 나타난 것들을 비교해 보자.

꾸짖음의 대상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회당의 더러운 영	1:25	x	4:35
더러운 영	3:12	12:16	4:41 //막 1:34
바람을	4:39	8:26	8:24
제자들	8:30	x	9:21
베드로가 예수를	8:32	16:22	
베드로를	8:33	x	
병어리, 귀먹은 영	9:25	17:18	9:42
어린아이들	10:13	19:13	18:15
사람들이 소경을	10:48	20:31	18:39
			4:39; 9:55; 17:3; 19:39; 23:40

위 도표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점이 두 가지 있다. 마태복음을 마가복음과 비교할 때, 마가복음에 있는 3 가지 경우가 마태복음에 나타나지 않는다.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꾸짖는 사건은 마태복음의 문학적 성격에서 볼 때 이해할 만하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제자를 부른 후 곧바로 회당으로 들어가 가르치지만(1:21),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가 산에 올라 군중들을 가르친다(5:1). 당연히 회당의 사건은 마태복음의 문학적 구성과 이해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나머지 두 경우는 예수가 베드로를 꾸짖는 일로 베드로의 권위에 해가 되는 구절들이다(8:30, 33).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교회의 모범이다(16:17-19). 따라서 그의 고백이 꾸짖음의 대상일 수가 없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단어 선택인데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경계한 말(διαστέλλω)은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쓰였을 뿐 아니라 다른 신약성서에서도 매우 드물게 쓰이는 말이다(행 15:24; 히 12:20). 그럼에도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단어가 5 번이나 쓰이는데(5:43; 7:36\*; 8:15; 9:9), 만일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경계할 목적이라면 그에 합당한 단어를 썼을 것이다. 각각의 복음서 저자들이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 예수는 왜 베드로를 꾸짖었을까? 그리스도 이해의 차이 때문이다. 신학/복음/이데올로기의 차이일 뿐, 메시아 비밀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가복음에 총 7 번 나오는데 이를 통해 마가복음 속에 드러난 그리스도 이해를 엿볼 수 있다(1:1; 8:29; 9:41; 12:35; 13:21; 14:61; 15:32).

- 1:1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 8:29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 9:41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 12:35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 13:21 그 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 14:61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 15: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1:1 은 마가복음의 신앙고백을 요약한 말로 이 말만 따로 떼어 분석하면 어떤 그리스도를 말하는지 그 내용을 짐작할 수가 없다. 8:29 은 가장 어려운 구절로 이 장의 핵심 본문이고 따로 생각을 요한다. 9:41 과 12:35 은 유일하게 예수의 입을 통해 나온 그리스도 이해를 반영한다. 일반적인 그리스도 이해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가 보통 생각하듯 다윗의 후손이고 왕권을 가진 통치자의 의미라면, 세상 사람들은 물 한 그릇이 아니라 사과 껌이라도 마다 않고 넣어 줄 것이다. 나머지 세 경우(13:21; 14:61; 15:32)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다. 결국 예수—혹은 마가복음의 예수—의 이해를 바탕으로 베드로의 고백(8:29)을 읽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가 세상의 그리스도를 반영한 것이라면 꾸짖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행동이 이를 뒷받침한다(8:32). 만약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가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다.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행적을 적지 않고 또 이어지는 예수의 행적이 멀리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예수는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지 모른다(6:31 참조). 예수의 질문은 자신이 누군지 몰라 묻는 말이 아니고, 이를 계기로 제자들을 교육함이 목적이다.

예수의 물음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공관복음에 모두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 막 8:30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고(ἐπιτίμησεν), 그(αὐτοῦ, 그/그것)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 마 16:20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δυστείλατο)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 눅 9:21 경계하사(ἐπιτιμήσας) 이 말(τοῦτο)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마가복음에서 ‘그’란 예수 자신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인칭대명사가 문장 안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가리킨다고 볼 때, (우리말 번역 “자신”과는 달리) 오히려 그리스도를 지칭함이 자연스럽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란 제자들이 이해한 그런 그리스도다.

누가복음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하지 말 것을 명한다. 그것은 중성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남성형인 예수나 그리스도를 지칭할 수는 없고 그 고백을 말한다고 본다. 그런 말(이해, 신학)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이런 꾸짖음이 마태복음에서는 칭찬으로 둔갑한다. “꾸중하다” 대신에 “경계하다”는 말을 쓴 것도 신중한 단어 선택이지만,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고백을 분명히 함에 더 큰 의의가 있다. 그(예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는 말이다. 이 문장 속에는 예수가 베드로의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예수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결정한다. 하느님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다. 각각의 복음서는 그것을 산출케 한 공동체의 신앙과 삶을 반영한다. 우리 모두의 성격과 유전 인자가 다르듯 복음서 마다 자신들 나름대로의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먼저 살펴야지 복음서 간의 상충되는 이해를 무조건 일치시키려는(harmonize) 노력은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일관성 있는 신학과 신앙생활이란 가치관의 설정과 함께 성서를 보는 해석학적 눈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생각은 풍요로움이지 분열과 배척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서로 다른 신학적 입장은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반응을 마태복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파괴적인 행위다. 본문을 통해 예수는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8:29)?

#### 생각해 보기

1.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2. 이 이해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만일 아무 차이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효능은?)